

# 濟州島 성주풀이의 構成 및 長短의 研究

金 恩 子

## 目 次

I. 緒 論	B. 성주풀이의 音樂的 構成 및 長短
II. 本 論	C. 성주풀이의 特徵
A. 樂器의 種類와 機能	III. 結 論

## I. 緒 論

### A. 問題提起

우리나라에서는 '巫俗' 혹은 '巫教'라고 불리우는 民間信仰이 地方마다 많이 있다. 이러한 巫俗信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굿'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굿에 관한 글이 실려있는 最初의 문헌은 297年 中國사람 陳壽가 쓴 《三國志》中 魏書東夷傳을 보면 夫餘·고구려·濊의 祭天儀式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 제천의식은 굿의 형태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sup>1)</sup>

1) 張師勳, 《韓國音樂史》, 서울, 正音社, 1976, pp. 17~18.

이러한 巫俗이 社會構造자체가 變化하거나 意識이 달라지면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巫俗의 保存과 研究는 매우 重要하며 시급한 일이고, 韓國的인 魂과 脈이 살아 숨쉬는 곳의 특징을 찾는일이 要求되고 있다.

## B. 研究의 目的 및 意義

제주도는 地理的인 特殊性으로 陸地와는 매우 다른 文化와 生活樣式을 形成하고 있다. 現存 濟州島 巫俗으로서의 特性을 이룩한 데는 이러한 影響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狀況으로 濟州島에서 行해지는 巫俗은 濟州島民의 生活 및 情緒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西歐化·科學化로 因하여 우리는 주위의 많은 傳統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몇몇 학자들이 무속분야에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發表된 濟州島 巫俗에 관한 音樂的 研究들은 韓萬榮의 《濟州道 巫俗研究》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의 민요·무속음악·무용에 관한 해설이 있고, 櫻井哲男(Sakurai Tetsuo)의 《巫俗儀禮의音》 등이 있다.

따라서 本 論文은 濟州島 全域에서 수시로 行하여지는 '성주풀이'를 現場調查하여 그 構成 및 長短, 그리고 特徵을 살펴보는 것을 目的으로 하겠다.

## C. 現場資料調查

民俗學의 研究에 있어서 現場調查는 문헌연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本 研究는 문헌연구와 함께 3회에 걸친 現場조사를 實施하였고 韓國文化藝術振興院 資料館에 비치되어 있는 제주도 '성주풀이'의 VIDEO TAPE를 참고 자료로 한다.

구체적인 現場조사 日程과 參加者는 다음과 같다.

Field work 1.

日 時 : 1987. 3. 22. (음력 2. 23)  
A. M. 7 : 00-P. M. 3 : 00  
場 所 : 제주도 용담2동 2743-16(양 순일氏宅)  
(일명, 목불생이 3거리 아홉골 밭)  
參加者 : 手神房(主巫) - 이 태수(男, 47才)  
          伴奏巫(小巫) - 강 치옥(女, 50才)  
                          양 춘일(女, 46才)  
                          서 영자(女, 44才)

Field work 2.

日 時 : 1987. 5. 21. (음력 4. 24)  
A. M. 5 : 30-P. M. 7 : 00  
場 所 : 제주도 용담2동 2725-21.  
參加者 : 수심방 - 이 태수(男, 47才)  
          반주무 - 강 치옥(女, 50才)  
                          양 춘일(女, 46才)  
                          문 병주(女, 54才)

Field work 3.

日 時 : 1987. 10. 4. (음력 8. 12)  
A. M. 10 : 00-P. M. 7 : 00  
場 所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동귀리 암남동 1356-1-12번지  
(현 기방氏宅) (일명, 취락코지)  
參加者 : 수심방 - 강 치옥(女, 50才)  
          반주무 - 이 만송(男, 54才)  
                          박 영옥(女, 42才)  
                          이 용순(女, 41才)

상기의 곳에 참가한 수심방 및 반주무는 여러 악기의 연주와 역할의 변화도 가능하므로 중복될 수 있으며, 수심방은 祭를 주관한 사람이 맡는다.

VIDEO TAPE

所 藏 : 韓國文化藝術振興院 資料館 視聽覺室, VTB 15(1)-(4)

日 時 : 1980. 8. 20.

場 所 : 濟州道 새마을회관.

參加者 : 수심방—안 사인

반주무—양 창보

김 찬옥

강 도화

使用器材

CASSETTE : SONY CASSETTE Model No. TCM-121.

CASSETTE TAPE : SMAT CASSETTE TAPE. HS 60×2, HS 60×2.  
HS 60×4

GOLDSTAR CASSETTE TAPE. HZ 90×4.

VIDEO TAPE : MEDIA VIDEO TAPE. T-120×3(VHS)

이상의 현장자료조사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자료를 중심으로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 그리고 이에 나타나는 몇몇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Ⅱ. 本 論

玄 容駿은 巫俗을 크게 一般祭와 堂祭 두가지로 나눈다.  
一般祭란 일반 가정에 生死·질병·생업 등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신을 請하

여 기원하는 것이고, 堂祭란 각 部落을 수호하는 堂神에게 行하는 巫儀이다.<sup>2)</sup>

濟州島에는 여러가지의 굿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 중 성주풀이는 가옥을 신축했을 때 하는 건축 의례이다.

本考에서는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악기편성에 의한 형식, 長短名 등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 A. 樂器의 種類와 機能

우리나라의 굿은 地方에 따라, 또는 때와 場所·規模에 따라 樂器使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방별로 악기의 쓰임새로 보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서울·남도지방의 旋律樂器와 서도·동부지방의 打樂器使用群이다.<sup>3)</sup>

이렇게 악기의 사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굿을 分類해 보았을 때, 성주풀이에서의 사용악기의 種類와 機能은 어떠한지 각 악기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징

징은 金鉦 또는 金이라고도 하며 鑼 또는 金鑼라고도 한다.<sup>4)</sup>

濟州島에서는 징을 보통 '대양'이라 부르며 材質은 芻이며 둥근 대야 모양으로 되어있다. 직경은 약 30cm, 깊이는 약 8cm이며 윗쪽에 손잡이용 끈이 달려있고, 長時間 演奏時에는 천장에 긴 끈을 매어 쓰기도 하며, 작은 소리를 낼 때는 간혹 무릎에 살짝대고 치기도 한다. 채는 끝을 형겅등으로 두껍게 감아서 만든 것을 사용한다.

징은 濟州島 巫儀 中 설채·북 등과 함께 춤의 반주악기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巫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악기이며, 주로 매장단 첫박에 많이 치며 小巫가 연주한다.

2) 玄容駿, 《濟州道巫俗研究》, 서울, 집문당, 1986, p. 232.

3) 張師勛, 韓萬榮 共著, 《國樂概論》, 서울, 한국국악학회, 1974, p. 181.

4) 張師勛, 《韓國樂器大觀》, 서울, 은하출판사, 1974, p. 121.

濟州島 巫俗에서는 이 징이 반주악기 외에 天神을 感動시키는 機能이 있다고 믿어 祈願樂器로도 사용되고 있다<sup>5)</sup>

## 2. 북

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 중 성주풀이에 사용된 북은 높이가 약 30cm 정도로 북통의 양면에 쇠가죽을 붙여서 만든 兩面鼓로서 직경은 약 30~45cm 정도인 북을 사용한다.<sup>6)</sup>

연주는 주로 小巫가 하며, 연주방법은 대(竹)로 만든 채통(바구니종류) 위에 비스듬히 세워 올려 놓고 양손에 북채를 들고 한면은 사용하지 않고 반대쪽 북면만을 치는것이 他 地方의 연주방법과 다르다. 북 양면의 牛皮는 각부분에 징을 박지 않고 가죽 끈으로 조여서 만든 것이다. 두개의 북채의 길이는 약 30cm 정도이며 북을 비롯한 모든 악기에 그림이나 조각을 새기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이 북 또한 모든 굿의 연주에 빠질 수 없는 打樂器이다.

## 3. 설 쉼

이것은 주발모양의 악기이다.

팽가리와 유사한 것으로 직경이 약 15cm, 깊이 약 6cm이고, 채의 길이는 약 25cm 정도로 가는 나무채 위에 형질을 감싸고 다시 끈으로 촘촘히 엮어 매었다.

팽가리와는 달리 들레에 손잡이 끈이 없고 팽가리를 때리는 부분을 위로하여 바구니모양의 채위에 얹어 놓고 小巫가 앉아서 양손에 채를 들고 친다.

巫儀에서는 설쉼만을 치는 경우는 없고, 수심방이 춤을 출 때, 징·북과 함께 竝用해서 반주악기로 쓴다.

5) 앞 글. 1986. p. 418.

6) 앞 글.

#### 4. 장 구

제주도의 巫儀에 사용되는 장구는 직경이 약 30cm, 길이 45cm 정도인 일반적으로 他 地方보다 조금 작으며 '3동막 살장구'라고 하는데, 이는 장고를 3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분리했을 경우 부피가 작아져 운반등에 매우 편리하다.

치는 방법은 왼쪽 복편은 손바닥으로, 오른쪽 채편은 가는 채를 들고 친다.

성주풀이에서는 주로 수심방 자신이 사설·노래하면서 단독으로 많이 연주한다.

#### 5. 요 령

요령은 손에 들고 흔들어 소리내는 악기이다.

요령도 巫俗儀禮에 사용되는 도구(音具)이다. 즉, 넓은 의미의 악기이지만, 심방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講神巫具로 보는 편에 가깝다고 한다.

#### 6. 바 랑

바랑(파랑)은 背面의 중심부에 끈이 붙어 있으며 접시모양으로 되어 있고 보통 '바라'로 알려져 있는 악기다.

이 바랑은 2개가 한 組이며,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이를 서로 마주쳐 소리를 내는 것이다.

佛敎의 梵唄 中 作法에서도 바라춤이 있듯이 불교의 영향에서 나온 악기이므로 불교적 색채가 짙은 巫儀에 많이 사용한다. 주로 수심방이 춤추면서 소리내는데 성주풀이에서는 樂器보다는 吉凶의 占을 치는 巫具로 사용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제주도 성주풀이에 사용되는 악기는 설쇄·징·북·장구·요령·바랑이다. 그러나 바랑·요령은 악기보다는 巫具로 간주한다. 이런 악기

편성은 경기지방이나 남도지방과는 달리, 서도나 동부지방에서 사용된 樂器 編成法과 類似하다.

## B. 성주풀이의 音樂的 構成 및 長短

성주풀이 構成은 祭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6部分으로 나눈다.

1. 초감제
2. 추물공연
3. 석살림
4. 姜太公首木手請
5. 문전본풀이
6. 도진

이상의 6部分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초감제

초감제는 굿을 알리는 가장 처음의 祭次이다. 곧 請神의 과정으로서 祭儀의 장소, 날짜, 연유를 알리고, 玉皇上帝以下 諸神의 位階를 따져서 請해 들이는 것이다.

초감제의 구성은 제차에 따라 (가)베포·도업침, (나)군문열림, (다)새드림, (라)신청림, (마)자손들 절함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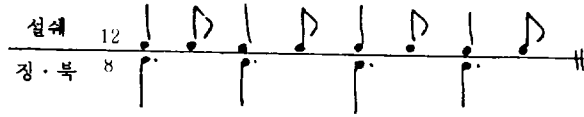
수심방(手神房, 또는 主巫)은 젓상앞에서 4拜를 하고 앉아서 수심방 자신의 장고에 맞추어서 사설을 읊으며 간혹 요령을 흔들기도 한다.

그런데, 3회에 걸친 現場調查中 1, 3次를 제외한 2次의 조사에서는 설채, 북, 징 3種類의 연물<sup>7)</sup>에 맞추어서 수심방이 춤을 추고 사설을 읊는데, 이때 「삼석치기」를 한다. 삼석치기란 위의 3악기로 <樂譜1>과 같은 장단을 「느림-보통-빠름」의 3가지 한배로 치는 것을 말한다.

7) 濟州道 方言. 즉, 他樂器를 이름.



<樂譜 1>



처음에는 ♩=42정도의 빠르기로 5장단정도 치고, 다음에는 ♩=56정도의 빠르기로 12장단정도 치며, 그 후 ♩=72정도의 빠르기로 약 3~4분간 연주된 후 다시 느려지면서 끝내는데, 모두 약 5분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때 수심방은 요령을 들고 춤을 추면서 간혹 요령을 흔들기도 하고, 사설에 요령을 添加하기도 한다.

主巫 및 小巫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삼석치기는 숲 곳을 통해 초감제에서 단 한번만 사용되는데, 굿의 시작준비나, 여러 參加者들이 미처 모이지 못할 때, 또는 밤늦게 시작하는등 주변의 狀況 및 시간 關係상 略式으로 할 경우에 限해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韓萬榮의 《濟州道の 巫樂研究》에서 보면 삼석치기에서 사용되는 樂器를 위의 3악기의 외에 장고를 包含시켜 「ㄱ진연물」이라 하여 4樂器로 소개하고 있는데 본 研究者가 調査한 바로는 4악기가 아니고 위의 3악기만 사용된다.

연물의 種類에는 「ㄱ진연물」<sup>8)</sup> · 「안뽕연물」<sup>9)</sup> · 「작글른연물」<sup>10)</sup>의 3種類가 있고, 굿 처음 시작부터 다음 祭次인 '베포·도업침'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0分에서 큰 굿의 경우 3~4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소요시간 10분)<sup>11)</sup>

- 8) 정, 북, 설채 3種의 他樂器가 갖추어진 것.
- 9) 人間死後의 가장 높은 神을 마당(시왕 방클)에서, 심방死後의 가장 높은 神을 집안(삼시왕방클)에서 神의 位階에 따라 번갈아 모실때 심방의 집에서 행해지는 것.
- 10) 小巫의 부족時 1人的 伴奏巫가 2種의 연물을 연주할 때, 또는 연물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것.
- 11) ( )에 제시한 소요시간은 한국문화예술킨흥원의 VIDEO TAPE에 준하여 나타난 시간임.

가. 베포·도업침

‘베포·도업침’이란 「베포친다」와 「도업친다」의 合成語로서 天地開闢부터 日月星辰 發生, 山水國土의 形成, 國家의 發生, 中國·韓國의 歷史·地理 등 自然·人文思想의 發生을 차례 차례 노래해 간다. 이 自然現狀의 發生을 노래하는 부분을 「베포친다」라 하고, 人文思想의 發生을 노래하는 부분을 「도업친다」라 한다.<sup>12)</sup> 이 해설은 神들에게 巫儀를 행하는 장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천지개벽부터 거슬러 올라가 확대 설명하기 시작하며 (1)날·국섬김, (2)연유담음의 2部分으로 나눈다.

먼저 수심방이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사설을 읊는다. 한 단락의 사설이 끝나면 다음 단락의 사설을 읊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해 간다. 사설의 장단은 「베포친다」와 「도업친다」가 동일하며 사설의 내용만 다르다.

이때 3악기의 연주는 <樂譜2>와 같으며 간혹 요령을 함께 흔들기도 한다.

<樂譜 2> ♩. = 37

사설에는 일정한 장단이 없고 3·4, 4·4調의 사설 音節에 맞추어 불규칙하게, 자연스럽게 읊으며 각 句의 끝을 약간 길게 빼는데, 이때 요령을 흔들어 단락을 맺는다.

사설·요령

12) 玄容駿, 《濟州道巫俗研究》, 서울, 집문당, 1986, pp. 262~263.

사설이 끝나면 수심방은 앉아서 수심방 자신의 장구반주에 맞추어서 베포치는 소리를 한다. 장구반주는 사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되며 사설이 쉬는 부분에서는 장구를 크게 치는데, 그것은 <樂譜3>과 같고 특별히 불리워지는 長短名은 없으며, 사설의 한 구절이 정확히 12/8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9/8, 15/8등으로 한 단락을 맺기도 하나 대체로 12/8정도에서 한 단락이 맺어진다. (소요시간 15분)

<樂譜 3> ♩. = 52

The diagram shows two staves. The top staff, labeled '사설', contains a wavy line representing a melodic line. The bottom staff, labeled '장구', shows a drum rhythm in 12/8 time. The rhythm consists of a series of eighth note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star symbol indicating a change in dynamics. Below the drum staff, a bracket labeled '작게치는 부분' (soft part) covers the first seven eighth notes, and another bracket labeled '크게치는 부분' (loud part) covers the remaining five eighth notes.

(1) 날과 국 섬김

祭儀의 날짜(日)와 장소(國)을 알리는 뜻이다.<sup>13)</sup>

音樂은 베포·도업침의 계속으로 사설과 함께 장고만의 반주로 <樂譜3>과 같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는데, 사설의 길이는 일정한 규칙없이 수심방의 기분과 호흡조절에 따라서 소리되어 진다. (소요시간 13분)

(2) 연유 탁음

巫儀를 행하는 동기, 이유를 노래하며 神들의 降臨을 請하는 차례이다.<sup>14)</sup>

음악은 베포·도업침과 같으며 수심방은 계속 앉아서 사설에 장구 반주만을 함께 한다. 사설이 끝나면 곧 이어서 3악기가 <樂譜2>와 같이 연주되며 수심방은 춤을 춘다. 처음에는 ♩. = 52 정도의 빠르기로 시작되며 약 3~4분쯤 후 조금씩 빨라져서 ♩. = 90 정도가 된다. (소요시간 6분)

13) 앞 글. p. 263.

14) 앞 글.

나. 군문열림(神宮의 間)

굿판의 門, 즉 시군문(神宮門)을 연 後, 巫占으로써 開閉與否를 판단하여 祭主에게 神儀를 傳達한다.<sup>15)</sup>

이 부분은 제차에 의해 (1)군문 돌아봄, (2)군문 열림, (3)주간 권잔, (4)분부 사림의 4부분으로 나뉘어 설명되어지며, 곧바로 (1)군문 돌아봄이 시작된다.

(1) 군문 돌아봄

神宮의 門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때, 수심방은 신칼<sup>16)</sup>과 감상기<sup>17)</sup>, 요령을 들고 춤을 추며 3악기가 연주된다.

이 부분에서는 빠르기나 장단의 변화가 초감제에서의 12/8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것처럼 연주되었는데 12/8형태가 빠르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아래의 <樂譜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樂譜 4>      ♩ = 56                                  ♩ = 120

The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two parts. The left part is in 12/8 time, with a tempo of ♩ = 56. It features two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설채' (Seolchae) and the bottom staff is labeled '북' (Buk). The right part is in 4/4 time, with a tempo of ♩ = 120. It also features two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설채' and the bottom staff is labeled '북'. An arrow points from the 12/8 part to the 4/4 part, indicating a tempo and meter change.

이 부분의 악기연주에 있어서 색다른 점은 북의 연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以前까지는 한개의 채만으로 연주했으나, 음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개의 채로 두드려서 연주함으로써 마치 장구에 있어서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15) 玄容駿, 《濟州道巫俗資料事典》, 서울, 신구문화사, 1980, p. 860.

16) 玄容駿, 1986, p. 421.

17) 巫占具.

연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장단의 반복과 빠르기가 점차로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정은 <樂譜4>의 3에  
서 ♩로 치며, 복은 여러가지의 變化形을 볼 수 있다. (<樂譜6>참고)

제차의 진행 중 수심방이 간혹 요령을 ㄱ ㄱ의 형태로 흔들면서 춤을 추기  
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한배의 변화에 따라 주어지는 명칭  
이다.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 「한배에 따른 形式」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진양  
조·중모리·자진모리·긴·자진, 혹은 慢·中·數등이 있는데,<sup>18)</sup> 이와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表1>에서와 같이 제주도 고유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表1> 빠르기 고유명칭표

초판(늦은석)	—	늦인중판	—	진중판 <sup>19)</sup>	—	막판(진석, 핑제미본)
♩ = 46~52		♩ = 88~96		♩ = 120~132		♩ = 172 이상

막판의 「핑제미본」이란 평의 매우 빠른 걸음걸이에서 연유된 명칭으로 상당  
히 빠른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명칭이다.

이 「군문 돌아봄」부분에서는 3악기가 초판→늦인중판→진중판까지 연주  
되고, 마지막 3~5장단은 초판으로 끝난다. 소요시간은 祭의 狀況에 따라 변  
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명시할 수는 없으나, Field Work 과정에서는 평균 7  
~10분간이었다.

빠르기가 빨라짐에 따라 3악기의 연주가 때로는 無長短의 형식으로, 또는  
무질서하게 연주되듯 들리나 이것은 「1채·2채·3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3악기 모두 이에 맞추어 연주하는 것이다.

「1채·2채·3채」는 <樂譜5>와 같다.

18) 張師勳, 韓萬榮 共著, <國樂概論>, 서울, 한국국악학회, 1974, p. 33.

19) 제주도에서는 '자진중판' 또는 '조진중판'으로 발음하므로 '진중판'  
으로 표기했으며 그 다음 빠르기의 '진석'도 앞의 설명과 동일하다.

또한 북의 Rhythm 변화도 多樣하게 나타나는데, 變化形을 살펴보면 <樂譜 6>과 같다.

<樂譜 5> ♩ = 172이상

← 1채      \*      2채      \*      3채      →

<樂譜 6>

북의 변화형은 장구를 조금만 익힌 사람이면 누구나 연주할수 있는것 같아 본 연구자도 따라해 보았으나 막판의 빠르기로는 결코 쉽지가 않았다. 이 북의 연주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濟州島 「칠머리당굿」<sup>20)</sup>의 人間文化財 第 71號인 安士仁(1930~ , 男巫)氏와 그 외의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다는 小巫의 이야기다. (소요시간 7분)

(2) 군문 열림

神들이 降臨하려고 하면 먼저 神宮의 門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수심방은 감상기와 도랑춤<sup>21)</sup>으로서 神宮의 門을 여는 行事를 한다. 이때 수심방은 감상기와 신칼, 요령을 들고 춤을 춘다.

「군문 돌아봄」에서의 연장으로 3악기가 연주되지만 군문 돌아봄 시작의 빠르기인 초판보다 조금 더 빠른 늦인중판에서 부터 시작되어 막판까지의 빠르기로 연주되니 전체적으로 군문돌아봄보다 빠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막판에서는 북의 연주가 <樂譜6>의 형태로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막판까지 3악기의 연주가 무척 빠르게 계속되었다가 다시 늦인중판으로 늦어져서 마지막 1~2장단은 <樂譜2>와 같이 초판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表2>와 같다.

<表2> 군문열림 빠르기표

늦인중판	→	느진중판	→	막 판	→	늦인중판	→	초 판
------	---	------	---	-----	---	------	---	-----

이 빠르기의 변화는 수심방의 동작에 따라서 한단계씩 빨라진다. (소요시간 19분)

(3) 주잔편잔

降臨한 여러 神 中 下位雜神을 대접하는 내용의 사설을 하며 술(酒)을 조금씩 뿌린다.

20) 濟州道堂에서 행하는 巫儀中의 하나.

21) <韓國民俗綜合報告書 濟州道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 312.

끝이어서 天門<sup>22)</sup>을 던져 군문(宮門)을 열면서 3악기가 <樂譜4>를 즉진중판으로 약1분간 그리고 이어서 <樂譜2>를 2장단 연주하고 끝난다. (소요시간 2분)

(4) 분부 사림

神門을 연후, 수심방은 門이 열렸는가 어떤가를 신칼과 산판<sup>23)</sup>으로 巫占을 쳐 그 神意를 祈者에게 전달한다.

이 神意의 전달은 神의 代辯으로서 본래 神託의 의미가 있다.<sup>24)</sup>

이 부분은 악기의 연주는 없고, 수심방이 서서 군문(宮門)이 열림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사실만 한다. (소요시간 5분)

다. 새 드림

神門이 열려서 神들이 降臨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강림하는 길의 모든 邪를 쫓아 깨끗이 하는 소리이다.<sup>25)</sup>

처음에는 <樂譜4>를 약1분간 연주한 후 수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치며 사설을 춤춤히 엮어 나가며, 小巫 中 1명은 북을 수심방의 장구와 함께 <樂譜7>과 같이 약6~7분간 연주한다.

<樂譜 7 >      ♩. = 42      →      ♩. = 72

사설

북  $\frac{12}{8}$

장구  $\frac{12}{8}$

22) 神宮의 門 開閉여부를 占치는 巫具.

23) 玄容駿, 1980, p. 877.

24) 玄容駿, 1986, p. 263.

25) 앞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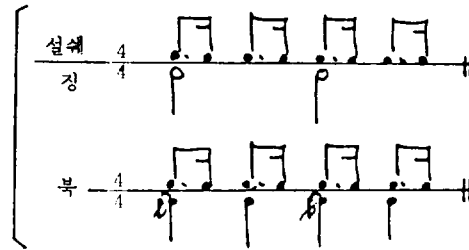


이 〈樂譜7〉의 새 드림장단에 맞추어 수심방의 독창과 小巫의 솜씨가 주저니 받거나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심방들은 「선소리·후소리」<sup>26)</sup>라 한다.

처음에는 〈樂譜7〉의 연주가 ♩=42정도로 연주되고 약 6~7분, 길게는 8분 후 빠르기는 점차 빨라져서 ♩=72로 변화되어 총 소요 시간은 약 10분간이다.

사실이 끝나면 小巫들은 3악기를 연주하며, 3악기의 기본 리듬형은 〈樂譜8〉과 같고 약1분간 연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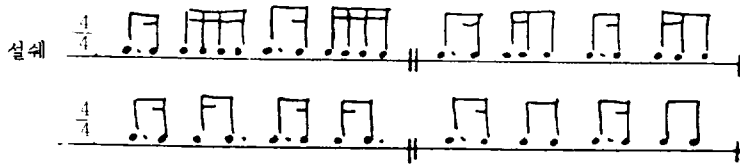
〈樂譜 8〉 ♩ = 138



다시 수심방이 감상기를 들고 사실과 함께 춤을 춘다.

이때의 빠르기는 조금 더 빠른 ♩=152정도로 리듬형은 〈樂譜8〉과 같으며 북의 변화형은 〈樂譜6〉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설쇄도 빠르기가 빨라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하여 나타난다.

〈樂譜 9〉



(소요시간 13분)

26) 張師勳, 〈國樂大事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p. 397.

라. 신청계

神들이 오는 길의 邪를 쫓아 깨끗이 했으므로 神들을 請해 들이는 순서로 「오리정<sup>27)</sup>신청계」라고도 한다. 수심방은 소위 1萬8千神이라는 神들을 位階 順으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請해들여 甞상에 좌정하라고 하며 쌀을 뿌리고 새 드림과 같이 수심방이 사설을 엮어 나간다.

사설이 끝난 후 신칼을 든 수심방이 춤을 추는데 <樂譜8>을 연주하며 북의 변화형은 <樂譜6>과 같이 계속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빠르기는 새 드림에서의 같이 처음에는 2진중판에서 점차 빨라져서 주로 막판에서 4~5분간 진행되며, 이때는 신칼 외에 감상기와 요령을 들고 춤을 춘다.

정은 2진중판에서는 1장단에 2번만 쳤으나 막판에서는 1장단에 4번 모두치며, 마지막 1장단은 <樂譜2>를 2장단 연주하고 끝낸다. (소요시간 7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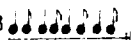
마. 子孫들 절함.

諸神들께 절한다.

악기연주 없이 사설만으로 초감제 끝맺음을 한다. (소요시간 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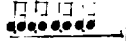
以上에서 살펴 본 초감제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3> 초 감 제 표

祭 次	行爲	使用 樂器	所要 時間	長 短 型	備 考
1. 초 감 제	사설	장 구	10분	12/8 	요령
가. 배포·도업침	사설·춤	3악기	15분	上 同	요령·춤
(1) 날국섬김	사설	장 구	13분	上 同	.
(2) 연유담음	사설	장 구	6분	上 同	.

27) 玄容駿, 1980, p. 891.

濟州島 성주풀이의 構成 및 長短의 研究

나. 군문열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1) 군문돌아봄	춤	3악기	7분	4/4 	춤(신칼, 감상기, 요령)
(2) 군문열립	사설·춤	3악기	19분	上 同	춤(上同)
(3) 주잔권잔	사설	3악기	2분	4/4+12/8	.
(4) 분부사뵈	사설	없음	5분	없음	.
다. 새 드 립	사설	북·장구	13분	12/8+4/4	.
라. 신 청 케	사설·춤	3악기	7분	4/4	춤(신칼, 감상기, 요령)
마. 자손들결합	사설	없음	2분	없음	.
			총99분		

2. 추돌공연

초감제에서 諸神을 請하여 罈상에 좌정시킨 후 神들께 제물을 잡수시도록 권하고 訴願을 비는 제차로 즉, 進饌課程<sup>28)</sup>이다.

수심방은 시중 앉아서 장고를 치며 罈상에 차려놓은 여러 음식을 열거하며 諸神께 잡수십사고 소리 한 후, 모든 福을 내려 달라고 빈다.

여기에는 장구만 쓰이는데 장단형은 초감제의 장단처럼 <樂譜3>과 같이 ♩ =42정도의 빠르기로 시작하여 가끔 채편의 잔가락도 挿入하면서 조금씩 빨라지고 끝에는 ♩ =72까지 이르며 이것은 아래<樂譜10>과 같다.

28) 玄容駱, 1986, p. 251.

<樂譜 10> ♩ = 42 → ♩ = 72.

사설의 한 구절이 항상 24/8로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부분이 사설 한구절의 마지막에 반드시 挿入되므로 24/8로 하였다. 그러나 가끔 27/8, 30/8, 33/8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수심방의 호흡조절, 사설, 기분등의 狀況에 따라 變化한다. (소요시간 40분)

추물공연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4> 추물공연표

祭 次	行 爲	使用樂器	所要時間	長 短 型	備 考
2. 추 물 공 연	사 설	장 구	40분	12/8	

### 3. 석살림

석살림부터는 본격적으로 神의 興을 돋구어 神들을 즐겁게 놀리고 祈願을 비는 儀式이다.<sup>29)</sup>

수심방은 노래와 춤으로서 香燭을 올리고 酒盞을 권하고 심방 뿐 아니라 祈

29) 玄容駿, 1980, p. 880.

者나 구경꾼들도 모두 춤을 추며 神과 더불어 즐기면서 祈願하는 것으로 가. 향촉권상, 나. 주잔권잔, 다. 석살림, 라. 덕담의 4부분으로 나눈다.

사실면으로는 초감제가 아닌 석살림의 「날·국섬김」과 「연유담음」이 조금씩 짧게 들어가나 본 석살림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音樂은 사실 중간 중간 <樂譜4>가 添加되고 빠르기는 늦인중판이다.

곧이어 나올 3. 석살림의 가. 향촉권상, 나. 주잔권잔 부분과, 뒤에 나올 4. 姜太公首木手請의 가. 향촉권상, 나. 주잔권잔은 構成의 명칭은 同一하나 請神의 對象이 다르다. 前者는 姜太公首木手神보다 높은 諸神을 이르고 後者는 姜太公首木手神만을 이룸이다. (소요시간 21분)

가. 향촉권상

香燭을 드리는 대목으로서, 祭壇을 깨끗이 함을 이른다.

이때 3악기의 연주를 하며 특히 樂舞를 할때는 香爐를 손에 들고 춤을 춘다. 여기서의 빠르기는 ♩ = 132정도이며 장단은 <樂譜11>과 같고 연주-사설-연주-사설의 형식이 반복, 북의 여러 변화형이 나타나며 수심방의 춤이 함께 진행된다.

<樂譜 11> ♩ = 132.

3악기의 연주는 2진중판→2진석까지 연주되고 끝에 조금 느려지면서 <樂譜2>를 1~2장단 연주하고 끝난다. (소요시간8분)

나. 주잔권잔

諸神의 進饌과 祈求가 있었고 여러 음식을 대접했으니 이에 諸神을 모아 盞을 勸하는 과정이다.

이 祭次의 음악적 진행 과정은 위의 향축권상과 같으며 이 과정은 향축권상의 끝에 아주 짧게 붙는다. (소요시간 2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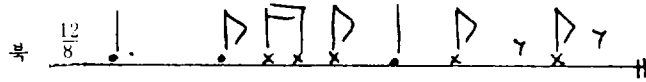
다. 석살림

神들을 즐겁게 놀리고 所願을 비는 祭次이다. 神들에게 술을 권하고 심방·祭主·家族들이 모두 춤을 추며 神과 더불어 즐기면서 祈願하는 것이다.<sup>30)</sup>

여기서는 아주 작은 '바라'(파랑)가 쓰인다. 이것은 主巫가 양손의 母指와 食指에 각각 끼우고 춤을 추면서 가끔 마찰시켜 소리를 낸다. 이 바라의 출현은 '성주풀이'에 있어서 主神인 「姜太公首木手」의 出現與否를 占치는 舞具로 사용되고 있다.

수심방은 선소리(사설)를, 小巫들은 여흥으로 후소리를 <樂譜12>의 북연주에 맞추어 노래부르고, 이때 북은 '각' 부분을 치며 7~8장단 정도 부른다.

<樂譜 12>      ♩. = 42.




以後 사설과 함께 음악도 빨라지며 이때는 3악기가 쓰이는데 <樂譜5>의 규칙으로 매우 빠른 卍진석의 빠르기로 2~3분간 연주된다. 그후, 卍진중판과 늦인중판을 빠르게 거쳐<樂譜2>를 1~2장단 연주후 다음 祭次인 '덕담'으로 이어진다. (소요시간 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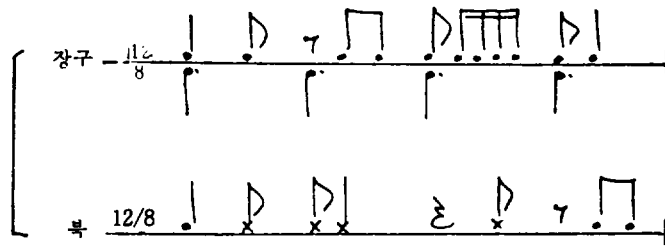
30) 玄容駿, 1986, p. 252.

라. 덕 담<sup>31)</sup>

이 祭次의 내용은 조상신을 흥겹게 놀리는 것이다.

덕담부분에서는 3악기의 쓰임이 아닌, 북과 장고의 연주에 의해서 굿이 진행되며, 수심방은 요령을 들고 사설을 읊는데 이 사설에서 요령을 의 형태로 혼든다. 다시말해 사설-요령(♩)-사설-요령(♩)의 반복형태가 3장단정도 이루어지며, 그 후에는 사설과 사설이 없는 부분에도 아래와 같은 장단이 붙는다.

<樂譜 13>      ♩. = 38      →      !. = 78



<樂譜13>의 장단을 장구는 수심방이, 북은 伴奏巫 中の 1명이 연주하는데 이 장단형은 '굿거리장단'과 매우 흡사하다. <樂譜13>이 약 15장단정도 연주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칭하는 장단이름은 없이 '덕담장단'이라 하고 빠르기는 처음에는 ♩. = 38에서 중간이후 흥이 나면 ♩. = 78정도로 빠르고 흥겹게 진행된다.

또 한가지 이 제차의 진행中에 「서우젯소리<sup>32)</sup>」가 있다. 이는 魚業에 종사한 조상을 講할때 불리워 진다. 서우젯소리는 흥겨운 民謠를 듣는듯 장단이나 형식이 뚜렷하다. 즉, 수심방이 두장단을 맥이면 小巫들이 두장단을 습唱으로 받는 형식이다.

31) 玄容駿, 1980, p. 868.

32) 《韓國音樂事典》, 서울, 大韓民國藝術院, 1985, pp.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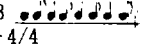
수심방의 선소리에 小巫들이 “어허어아--”하는 후렴구의 후소리가 붙는데 이때 선소리의 독창자가 “어하 어하”로 따라 부르는 것이 좋은 效果音을 만들어 준다.

서우젯소리는 덕담가락과 같이 장고와 북이 사용되었으나 역시 북이 중심이며 장단형도 동일하다. 이 서우젯소리는 반드시 불리워 지는것은 아니고 집집마다 조상신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조상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서우젯소리는 省略해도 무방하다.

빠르기는 <樂譜13>이 ♩. =38로 시작, 덕담과 같았으나 끝에는 빨라져서 ♩.72에 이른다. 덕담사설이 끝난 후에 ♩ =132→♩ =182로 3악기의 연주가 <樂譜6>의 형태로 약1분간 연주되며 神의 여흥여부를 占칠때는 <樂譜2>의 장단형이 ♩. =42~46의 빠르기로 약 5~6장단 연주된다. (소요시간 9분)

以上の 석살림 部分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석살림표

祭 次	行 爲	使用樂器	所 要 時 間	長 短 型	備 考
3. 석 살 림	사설·춤	3악기	21분	4/4 	
가. 향축권상	上 同	上 同	8분	上 同	춤(향로)
나. 주잔권잔	上 同	上 同	20초	上 同	
다. 석 살 림	사설, 춤, 노래	上 同	4분	12/8  + 4/4	춤(바라)
라. 덕 담	사설·노래	3악기	9분	上 同	덕담가락 (장단), 서우젯소리 ·요령
			총43분		



#### 4. 姜太公首木手請

「姜太公首木手」<sup>33)</sup>는 성주풀이의 가장 中心的인 行事이다.

이 부분에서는 上記 祭次의 여러 神이 아닌 姜太公首木手神만을 請하는 제차로서 앞의 석살림 부분과 같은 제차가 이루어지나 請神의 主體는 姜太公首木手神에 국한된다.

祭次의 構成은 가. 향측권상 나. 신청계, 다. 지불임, 라. 성주日月 및 가내 수호신 놀림, 마. 주잔권잔의 5부분으로 되어있다.

3악기가 〈樂譜8〉의 형태로 연주되며 그 빠르기는 ♩=112로 약 30초간 연주된다. (소요시간 2분)

##### 가. 향측권상

祭壇을 깨끗이 함을 이름으로서, 3악기가 〈樂譜8〉의 형태로 ♩=132의 빠르기로 연주하며 향로를 들고 춤추고 3·3, 4·4조의 사설을 한구절 하면 〈樂譜8〉의 연주가 1장단 또는 2장단 연주된다. 즉, 연주-사설이 각각 30초 정도씩 진행되는 구성인데, 이때 사설은 '姜太公首木手'의 출현을 알리는 내용이 된다. (소요시간 1분)

##### 나. 신청계(姜太公首木手請함)

上記 초감제의 라. 신청계에서와 의미는 같다. 그러나 초감제의 라. 신청계에서 請한 1萬8千神의 請神이 아닌, 姜太公首木手 '現神'에 대한 신청계이므로 請神 대상에서의 차이가 있음이 다르다. 즉 성주풀이의 主神인 姜太公首木手神이 나타남을 이르며 〈樂譜8〉이 ♩=184로 연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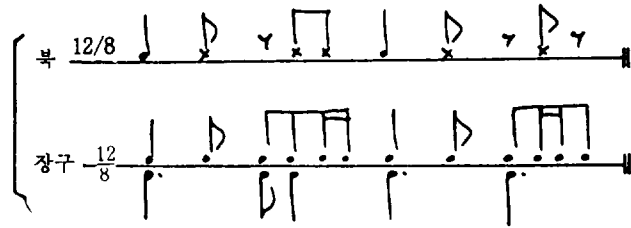
첫 부분에서는 사설만 나오며, 수심방의 劇的인 要素를 포함하며 건축을 위한 나무베는 동작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굿 中 劇」(現神-도끼갈음-나무베-건축)이 나타난다. 도끼갈음에서는 '도끼 날가는 소리'의 民謠가 나오는데, 現

33) 앞 글, p. 859.

濟州民謠로서는 불리워지지 않고 곳에서만 무반주로 불리워 진다. <樂譜8>을 ♩ = 134로 10장단 정도 연주 후 나무베는 과정에서 '낭비레 민요'가 북·장구의 반주로 <樂譜14>와 같이 ♩ = 48의 빠르기로 9장단 정도 불리워 지며 장단 이름은 '낭비레 장단'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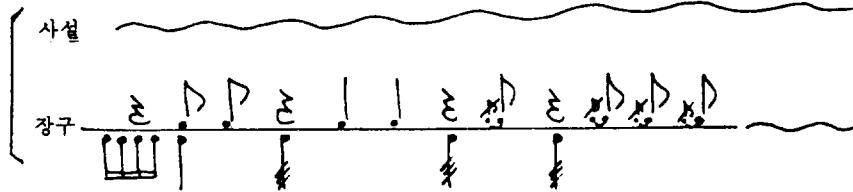
<樂譜 14>

♩ = 48



다음 나무 베어서 끌어 내리는 소리가 있는데 무장단으로 장구 연주가 <樂譜15>와 같이 연주되며 여러 형태의 변화형으로 진행된다

<樂譜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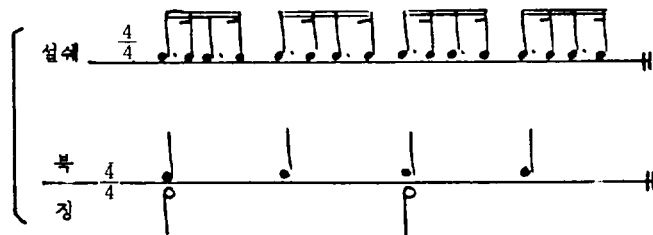


이어서 模型으로 집을 지으면서 占卦를 보고, 수심방과 집주인과의 건축에 얽힌 대화로 '지남석낙양판'(占具)이 이어진다. (소요시간 28분)

다. 지불임

신청계의 제차에서 집을 지었으니, 이번 제차에서는 잘 지은 좋은 집이라 이르는 내용이다.

〈樂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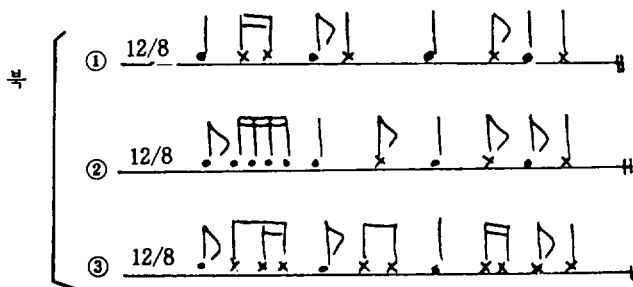
〈樂譜16〉이 즈진중판-즈진석-즈진중판으로 약 5분간 연주되는데 5分 직전 징·북이 2배 빨라지면서 4~5장단 연주 후, 3악기가 〈樂譜8〉을 약 2분간 연주하며, 다시 〈樂譜2〉을 ♩. =42로 2장단 연주하고 수심방은 요령을 들고 춤을 춘다. (소요시간 8분)

라. 성주 日月 및 가내수호신 놀림

이제 성주의 主神인 姜太公首木手神과 여러 가내의 神을 흥겹게 놀리면서 가내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때, 수심방은 덕담의 사설을 한다. 북·장고의 장단은 앞에서 밝힌 ‘덕담가락’과 동일한 12/8로 3분간 연주되며 북이 약간의 변화를 갖는데 변화의 예는 〈樂譜17〉와 같다.

〈樂譜17〉



이어서 조상신을 위한 놀이라 할 수 있는 「담불가락」<sup>34)</sup>이 나온다. 역시 북·장고만을 사용하며, 선소리·후소리가 있고 장단은 덕담가락과 동일하며 사설만 다르고 ♩. = 42로 시작해서 ♩. = 62로 빨라지며 약 1분간 연주된다. (소요시간 6분)




마. 주잔권잔

姜太公首木手에게 잔을 권하는 제차이다.

3악기의 연주 형태와 빠르기는 4-가. 향촉권장과 같다. (소요시간 1분)

以上の 姜太公首木手請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6〉 姜太公首木手請表

祭 次	行 爲	使用樂器	所 要 時間	長 短 型	備 考
4. 姜太公首木手請	사 설	3악기	2분	4/4 	.
가. 향촉권상	사설·춤	上 同	1분	上 同	춤(향로)
나. 신청례	사설· 天中극· 노래	上 同	28분	4/4  + 12/8 	도끼날가는소리, 남비레민요(장단)
다. 지불임	사 설	上 同	8분	4/4	.
라. 성주日月 및 가내수호신놀림	사 설	북· 장구	6분	12/8	.
마. 주잔권잔	사 설	3악기	1분	4/4	.
			총4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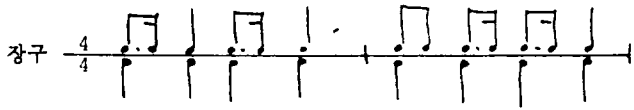
34) 앞 글, p. 862.

5. 문전본풀이

門神의 신화를 노래하고 가내 안전을 비는 의례이다. 구성은 가. 각도비념, 나. 소지살음, 다. 액막이의 3부분으로 되어있다.

각도비념<sup>35)</sup>의 제차가 끝날때까지 계속 수심방의 사설이 이어지며 장구는 <樂譜3>과 같은 형태로서 ♩.=76으로 연주되는데, 약 6분쯤 후부터 조금 더 빠른 ♩.=90으로 연주된다. 다시 6분정도 후에 조금씩 더 빨라져서 <樂譜18>이 약 9분간 연주된다. (소요시간 22분)

<樂譜 18> ♩ =132



가. 각도비념

집안의 각처를 관장 수호하는 神에게 기원하는 의례의 제차이다.

음악은 없으며 수심방은 앉아서 비념의 사설을 읊으며 가끔 불규칙하게 요령만을 ㄱ ㄴ의 형태로 흔들면서 (1)할망신, (2)조왕신, (3)안칠성, (4)박칠성에 대한 비념·소지살음을 한다. (소요시간 15분)

(1) 할망신

마을의 토지나 주민의 제반사항을 차지하여 수호해 주는 神을 모신 本鄉堂 神<sup>36)</sup>의 別稱

3악기의 연주는 없고 요령만을 흔들며 기원하는 작은 규모의 巫儀이다. (소요시간 10~15분)

35) 앞 글, pp. 858~859.

36) 앞 글, p. 876.

(2) 조왕신

부엌일을 관장하는 家神, 집안일을 偵探한다고 한다. 대개 중발이나 작은 오지 뚝배기에 냉수를 떠서 조왕신에게 바친다.<sup>37)</sup>

(3) 안철성

濟州島에서 畜를 가져다 주는 神이라 믿어 모시는 蛇神中에 광의 쌀독을 지켜준다는 철성. 안할망<sup>38)</sup>

악기의 연주는 5-가-(1)과 동일하다. (소요시간 10~15분)

(4) 밧철성

濟州島에서 畜를 가져다 주는 神이라 믿어 모시는 蛇神中에, 집 뒤의 환구 석에 밧가리를 덮을때 사용하는 주쟁이를 덮어 모시는 철성<sup>39)</sup>

악기의 연주는 5-가-(1)과 동일하다. (소요시간 10~15분)

나. 燒紙살음

祖上께 굿의 끝남을 알리는 순서로 諸神들의 燒紙를 불사른다. 祭主는 끓어 앓아 소지를 사취 기원하고 巫占하여 神意를 전달한다.

음악은 없고 사설끝에 요령만을 혼든다.<sup>40)</sup> (소요시간 15분)

다. 厄막이

집안의 굿은 厄을 막아서 幸運이 오게 해 달라고 빈다.<sup>41)</sup>

음악은 없고 사설에 요령을 혼들며 紙錢<sup>42)</sup>, 기메<sup>43)</sup>, 폐백<sup>44)</sup>등을 불사른다. (소요시간 20분)

以上の 문전본풀이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7) 張師勳, 《國樂大事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p. 684.

38) 《民俗藝術事典》,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p.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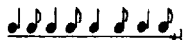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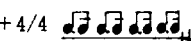
39) 앞 글. p. 129.

40) 앞 글. p. 167.

41) 玄容駿, 1980, p. 886.

42), 43), 44) 巫儀의 象徴旗.

〈表7〉 문전본풀이표

祭 次	行 爲	使 用 樂 器	所 要 時 間	長 短 型	備 考
5. 문전본풀이	사 설	장 구	22분	12/8  + 4/4 	
가. 각도비닐	上 同	없 음	15분	업 음	요 령
(1) 할망신	上 同	上 同	10-15분	上 同	上 同
(2) 조왕신	사 설	없 음	上同	없 음	요 령
(3) 안칠성	上 同	上 同	上同	上 同	上 同
(4) 박칠성	上 同	上 同	上同	上 同	上 同
나. 소지살음	上 同	上 同	15분	上 同	上 同
다. 액막이	上 同	上 同	20분	上 同	上 同
			총120분		

## 6. 도진

초감제때 請해들인 소위 1萬8千神을 모두 돌려보내는 送神의 儀禮<sup>45)</sup>로서 수 십방이 서서 神들의 位階順으로 神名을 부르면서 돌아가십사고 노래하며 사자의 깃상만 남기도 다른 깃상은 撤末한다. 방안의 구석 구석까지 콩(혹은 소금)을 뿌려서 惡靈을 쫓아내고 술을 입에 물어 방안에다 뿜어 不淨씻어 巫儀를 끝낸다.<sup>46)</sup>

45) 玄容駿, 1986, p. 256.

46) 앞 글, p. 374.

음악은 수심방이 서서 사설을 하면 小巫 中 1인이 <樂譜7>의 형태로 복단을  
♩. = 36의 빠르고 연주하며 각 句마다 복창을 한다. (소요시간 3~10 분)  
도진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 도 진 표

祭次	行爲	使用器	所要時間	長	短	型	備考
6. 도진	사설	북	3~10분	12/8			

以上 성주풀이 전체의 제차에 의한 構成 및 長短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9> 성주풀이 전체표

祭次	行爲	使用器	所要時間	長	短	型	備考
1. 초 감 제	사 설	장 구	10분	12/8			요령
가. 베포·도업침	사설·춤	3악기	15분	上 同			요령, 춤
(1) 날·국섬김	사 설	장 구	13분	上 同			.
(2) 연유타음	사 설	장 구	6분	上 同			.
나. 군문열림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
(1) 군문돌아봄	춤	3악기	7분	4/4			춤(신칼, 감상기, 요령)
(2) 군문열림	사설·춤	上 同	19분	上 同			上 同
(3) 주잔권잔	사 설	上 同	2분	4/4+12/8			.
(4) 분부사림	사 설	없 음	5분	없 음			.
다. 새드림	사 설	북·장구	13분	12/8+4/4			.
라. 신청계	사설·춤	3악기	7분	4/4			춤(신칼, 감상기, 요령)
마. 자손들결합	사 설	없 음	2분	없 음			.



濟州島 성주풀이의 構成 및 長短의 研究

2. 추물공연	사 설	장 구	40분	12/8	.
3. 석살림	사설·춤	3악기	21분	4/4	.
가. 향측권상	上 同	上 同	8분	上 同	춤(향로)
나. 주잔권잔	上 同	上 同	20초	上 同	.
다. 석살림	사설·노래·춤	上 同	4분	12/8  + 4/4	춤(바라)
라. 덕담	사설·노래	3악기	9분	上 同	덕담가락(장단), 서우젯소리, 요령
4. 姜太公首木手躑	사 설	3악기	2분	4/4	.
가. 향측권상	사설·춤	上 同	1분	上 同	춤(향로)
나. 신청쾌	사설·굿中극·노래	上 同	28분	4/4  12/8	도끼날가는소리, 낭비레
다. 지불임	사 설	上 同	8분	4/4	민요(장단)
라. 성주日月 및가 내수호신놀림	사 설	북·장구	6분	12/8	.
마. 주잔권잔	사 설	3악기	1분	4/4	.
5. 문전본풀이	사 설	장 구	22분	12/8  + 4/4	.
가. 각도비념	上 同	없 음	15분	없 음	요령
(1) 할망신	上 同	上 同	10~15분	上 同	上同
(2) 조왕신	上 同	上 同	上同	上 同	上同
(3) 안철성	사 설	없 음	10~15분	없 음	요령
(4) 밧칠성	上 同	上 同	上同	上 同	上同
나. 소지살음	上 同	上 同	15분	上 同	上同
다. 액막이	上 同	上 同	20분	上 同	上同
6. 도 진	上 同	북	3~10분	12/8	.

\*VIDEO TAPE에는 5. 문전본풀이의 첫부분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의 시간은 VIDEO TAPE에 準했고, 5-가. 각도비념 以後의 시간은 Field Work 평균 소요시간이며, 3회의 Field Work 소요시간 및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성주풀이의 평균 소요시간은 매회 8~9시간 정도이다.

### C. 성주풀이의 特徵

이상에서는 제주도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성주풀이에서 특징지을 수 있는 악기편성에 따른 형식과 악기의 사용, 빠르기 명칭, 그리고 종지형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樂器編成에 따른 分類

앞에서 연구한 성주풀이의 각 祭次를 樂器編成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表9>를 參考로 한다.

첫번째인 초감제를 살펴보면 다섯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즉, 베포·도업침, 군문열림, 새드림, 신청제, 자손들절함이다. 베포·도업침은 다시 날·국섬김과 연유담음으로 나뉘는데, 베포·도업침은 3악기와 요령을 사용하였고, 날·국섬김과 연유담음은 장구만을 사용하였다. 베포·도업침에 사용된 요령은 수심방의 춤행위 時에 쓰이므로 巫具로 보아 이부분에서는 3악기와 장구만이 쓰인다고 하겠다. 둘째 부분인 군문열림은 군문돌아봄과 군문열림, 주잔권잔, 그리고 분부사뵐으로 나뉜다. 분부사뵐에서는 3악기가 사용되지 않고, 군문돌아봄, 군문열림, 주잔권잔에서 모두 3악기가 쓰인다. 세째 부분인 새드림에는 북과 장구만이 사용되며, 네째 부분인 신청제는 3악기가 사용된다. 이렇게 살펴본 성주풀이의 초감제는 3악기·북·장구가 사용되는데 이 부분을 편의상 ‘混合演奏部分’(單樂器+3樂器)라 칭한다.

두번째 제차인 추물공연을 보면, 장구만이 사용되는데 이 부분은 ‘單樂器演奏部分’이라 칭한다.

세번째 祭次인 석살림을 살펴보면, 향축권상, 주잔개잔, 석살림, 덕담의 4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 부분은 3악기에 의해서만 연주되는데 덕담부분에는 요령이 添加된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요령도 巫具로 보아 이 부분을 '3樂器演奏部分'으로 칭한다.

네째 祭次인 姜太公首木手請은 향측권상, 신청계, 지불임, 성주日月 및 가내수호신 놀림, 주잔권잔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도 성주日月 및 가내수호신 놀림부분을 除하면 3악기로 연주된다. 성주日月 및 가내수호신 놀림부분은 북·장구만으로 진행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 부분은 '3樂器演奏部分'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겠다.

다섯번째 祭次인 문전본풀이는 각도비넙과 소지살음, 액막이로 나뉘는데, 각도비넙은 다시 할망신, 조왕신, 안칠성, 밧칠성으로 나눈다. 이 제차는 첫 부분에 장고만 쓰이고 주로 요령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單樂器演奏部分'으로 본다.

마지막 祭次인 도진은 북만의 연주로 진행되므로 역시 '單樂器演奏部分'으로 본다.

이렇게 樂器編成에 따른 성주풀이를 살펴본 바 1)混合演奏部分, 2)單樂器演奏部分, 3)3樂器演奏部分, 4)3樂器演奏部分, 5)單樂器演奏部分, 6)單樂器演奏部分으로 나타나는데, 3)과 4)의 제차를 한단위로 묶고 5)와 6)의 제차를 한 단위로 취한다면 성주풀이에 사용된 樂器編成法은 混合演奏部分·單樂器演奏部分·3樂器演奏部分의 3가지이며, 樂器編成에 따른 演奏形成은 混合演奏部分→單樂器演奏部分→3樂器演奏部分→單樂器演奏部分인 A·B·C·B로 나타난다.

## 2. 심방의 行爲에 따른 樂器의 使用

이번에는 심방의 행위에 따라 반주악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초감제에서의 심방의 행위는 사설로만 되어있으며, 사용악기는 장구이다. 배포·도업침에서는 사설과 춤으로 심방의 행위가 이루어져 있고 3악기가 사용된다. 날·국섬김과 연유뒹음은 사설로만 심방의 행위가 계속되며 장구만

이 사용된다. 군문열림에서의 군문돌아봄은 춤으로 심방의 행위가 이루어지며 사용악기는 3악기이다. 군문열림에서의 심방의 행위는 사설과 춤이며 3악기가 사용되고, 주잔권잔은 사설만이 심방의 행위로 나타나며 3악기가 쓰인다. 분부사뵈에서는 사용악기 없이 사설만으로 진행된다. 새드림에서의 심방의 행위는 사설만으로 사용악기는 복과장구이다. 신청계에서는 사설과 춤으로 심방의 행위가 이루어지며 3악기가 사용된다. 자손들결함에서는 사설만이 나타나며 사용악기는 없다.

이렇게 초감계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심방의 행위가 사설로만 되었을 경우에는 單樂器 혹은 두종류의 악기가 사용되며 심방의 행위가 춤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3악기가 모두 쓰인다는 점이다. 물론 사설이 나올 경우에 3악기가 쓰이기도 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설中에는 3악기가 쓰이지 않고, 사설이 쉬는 부분, 혹은 사설이 旬나 節의 끝에 나타나므로 3악기는 주로 춤을 출때 쓰인다. 이것은 사설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사설중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듯 싶다.

추물공연 이하도 초감계와 大差가 없으므로 이하는 省略하고 <表9>를 參考로 한다.

### 3. 빠르기의 명칭

우리나라의 巫樂에는 상당히 많은 장단이 쓰이며, 同一形의 장단이라 할지라도 각 지방에 따라 달리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演奏者들도 長短名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각 지방의 장단 명칭의 例로는 서울지방의 부정장단, 자진타령, 도드리, 타령등이며 南道地方의 도살풀이, 반설음, 가래조등이고 東部地方의 청보, 재마수, 푸너리등이 있고 西道地方의 염불, 타령, 굿거리등이 있다.<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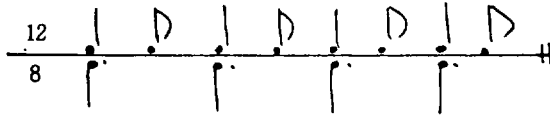
이런 것에 비추어 濟州島에서도 심방들 나름대로의 한배에 따른 固有의 명칭이 있었는데 성주풀이에서 사용되는 빠르기 用語를 살펴보면 「초판-늦인중판-조진중판-막판」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었다.

47) 張師勳, 韓萬榮, 1975, p.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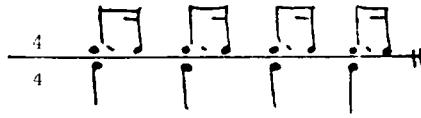
초판은 성주풀이에 가장 느린 장단으로 ♩.=46~52이며, 늦은중판은 초판보다 조금 빠른 장단으로 ♩.=88~96이고 진중판은 늦은중판보다 조금 더 빠른 장단으로 ♩.=120~132의 빠르기이다. 마지막의 막판으로 가장 빠른 빠르기로서 ♩.=172 이상이다. (<表1> 참고)

#### 4. 성주풀이에 사용된 長短

성주풀이에 사용된 장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樂譜는 12/8거리형으로 빠르기가 느린 초판에서 나타난다. 성주풀이는 대부분 굿거리형으로 시작하는데 음악이 계속되면서 장단이 점차 빨라져 가장 빠른 막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음악이 빨라지게 되면 장단은 굿거리형에서 점차 벗어나 4/4박자의 단모리 형태로 나타난다.



#### 5. 성주풀이 長短의 終止形

우리나라 음악은 一般的으로 느린부분에서 시작하여 빠른부분으로 진행하여 끝을 맺는다. 그 代表的인 것으로 正樂에서의 靈上會上은 매우 느린 上靈山에서 시작하여 中靈山·細靈山을 거쳐 마지막에는 빠른속도의 軍樂으로 맺고 있으며, 民俗樂의 散調를 보면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하여 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단모리까지의 점차 빠른 曲으로 進行한다.

그러나 濟州島의 巫樂인 성주풀이에서는 느린부분에서 시작하여 빠른부분으로 진행되어도 終止에 이르러서는 다시 느린속도로 끝난다. 이러한 진행과

정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1-나-(1) 굿문돌아봄 : 초판-늦인증판-조진중판-초판
- ② 1-나-(2) 굿문열림 : 늦인증판-조진중판-막판-초판
- ③ 1-나-(3) 주장개잔 : 조진중판-초판
- ④ 1-라 신청계 : 조진중판-막판-초판
- ⑤ 3-가 향촉권상 : 조진중판-막판-초판
- ⑥ 3-다 석살림 : 막판-조진중판-늦인증판-초판
- ⑦ 3-라 덕 담 : 조진중판-막판-초판
- ⑧ 4-다 지불임 : 조진중판-막판-조진중판-초판

以上과 같이 성주풀이 長短의 終止는 시작의 빠르기에 관계없이 가장 빠른 막판의 빠르기까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초판'(늦인석)으로 끝난다.

### Ⅲ. 結 論

濟州島 巫樂인 성주풀이의 構成 및 長短과 特徵을 살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성주풀이에서 使用된 樂器는 打樂器로 장고, 설채, 징, 북이며 이는 東部地方과 西道地方의 樂器編成과 類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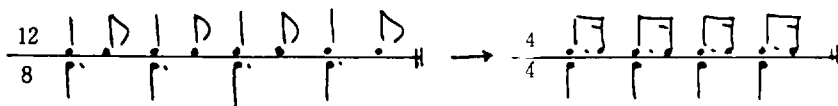
2. 수심방의 巫舞 혹은 行爲時에는 3樂器(설채, 북, 징)가 쓰이고, 사설 및 巫歌에는 장구나 북의 伴奏가 使用된다.

3. 樂器編成에 의한 分類上 성주풀이는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編成形式은 A·B·C·B로 나타난다.

- ① 초감계 : 混合演奏部分(A)
- ② 추물공연 : 單樂器演奏部分(B)
- ③ 석살림,                      ④ 姜太公首木手請 : 3樂器演奏部分(C)
- ⑤ 문전본풀이,                ⑦ 도진 : 單樂器演奏部分(B)

濟州島 성주풀이의 構成 및 長短의 研究

4. 성주풀이에서 使用된 長短은 느린부분에서는 12/8의 굿거리장단형이 쓰이며 음악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4/4의 단모리형으로 變한다.



5. 성주풀이에서 쓰인 빠르기에 대한 固有한 用語로 「초판-늦인증판-꺾진중판-막판」이 使用되었다.

6. 성주풀이의 長短의 終止刑은 초판·늦인증판·꺾진중판·막판 중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든지 終止는 반드시 '초판'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Summary

Study on Beat of Tune and Construction of  
Cheju Island Songju Prui.

Kim Eun-Ja

This study is aimed at searching for some characteristic factors centered on the construction and the beat of tune of the exorcism name Songju Puri conducted frequently at the time of having built the new houses in all of the areas of Cheju Island out of various sorceress customs in Cheju Island Korea.

For this study, the material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spot for three times, and made the video tape of Songju Puri in the Material Hall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the reference material.

The process of this study was divided in 6 parts in accordance with the ritual order, and the said 6 parts were divided in detail, and the usage of beat of tune and construction expressed in the process, and the musical terminology peculiar to the district of Cheju Island in relation to the land, and the usage of musical instrument compared with the other districts were checked.

As a result, the conclusion was brought.

1. The musical instrument used in Songju Puri are the percussion instrument such as the drum, Solshe, ging, bass/side drum, these are similar to the musical construction of the eastern districts and the western districts.
2. At the time of exorcism on the part of the visited and the action, the



three musical instruments are used, and in the accounting and sing, the accompaniment of the drum or the bass/side drum is used.

3. In the class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ion of musical instrument, Songju Puri can be divided into 4 parts. The style of formation is expressed in A, B, C and B.
  - (1) Mixed part of playing (A).
  - (2) The part of playing the single musical instrument (B).
  - (3) The part of playing three musical instruments (C)
  - (4) The part of playing the single musical instrument (B).
4. The beat of tune in Songju Puri is utilized the beat of tune of Gookuri of 12/8 in the slow part and is changed to the type of Danmori of 4/4 as the music gets the more faster.
5. The peculiar terminology to the speed used in Songju Puri was used as the "Chopan-Late Joongpan-Jajin Joongpan-Late Pan."
6. The Type of terminology of beat of tune of Songju Puri surely comes to an end as the Chopan even if in which part of Chopan, Jajin Joongpan, or late Pan it is started.